■ 2008 광주국제식품산업전 개막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8 광주국제식품산업전'을 참관한 국내외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모양의 빵과 케익 등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5개국 220개 업체 '맛의 향연'

23일까지 DJ센터서…다양한 볼거리·체험행사

토속음식 전시·식품 안전 세미나, 수출상담도

맛의 고장 광주에서 20일 '2008 광주국제식품산업전'이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내 식품전시회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산업자원부 유망 전시회로 선정된 이 행사에 올해는 미국과 호주, 러시아, 폴란드 등 15개국 220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건강식품과 토속음식을 선보인다. 식품안전과 웰빙, 외식창업, 영양 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잇따라 열린다. 프랑스와 칠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와인관을 설치했다.

◇무엇을 맛볼 수 있나=광주시가 주최하고 DJ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모두 425개 부스가 설치돼 지방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강과 안전'이라는 행사 주제에 걸맞게 맛의 고장 호남을 대표하는 우수 전통식품과 특산품, 각국의 토속음식 등이 대거 소개되며 외식프랜차이즈관, 와인특별관, 식품기기관, 건강식품관이 개설됐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는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류와 한과, 젓갈, 발효식품, 수산가공식품, 복분자, 유자 등 다양한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을 내놓았다. 또 보성 녹차와 진도 홍주, 완도 전복, 순창 장류 등 널리 알려진 전통음식도 주제관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볼거리와 체험행사=먹을거리 외에도 광주향토음식특별전, 친환경농산물특별전, 조리작품전, 영양체험관, 광주 5味특별관, 러브米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커피바리스타대회, 제3회 빵제과페스티벌 등도 함께 열린다.

중국 멜라민 파동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식품안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식품안전광주포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심포지엄과 세미나, 조리사 교육, 음식업 종사자세미나 등도 개최되며 국제외식산업세미나와 와인세미나 등 학술세미나도 곁들여진다. 이들 세미나에는 5천여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KOTRA 주관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각 국의 식품업체 및 100여명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상담회도 열려 2천500만달러의 상담과 800만달러 상당의 계약실적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전통식품과 특산품을 브랜드화·상품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판로를 열어 나갈 방침이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번 국제식품산업전은 침체된 식품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제적인 전시인증인 'UFI 인증'을 획득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식품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전남대 녹지공원 공동 조성

전남대 서문~사대부속중·고교 정문 6천340㎡ 나무 1만3천여그루 심기로

광주시와 전남대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 녹지 확충에 나선다.

시는 20일 "전남대와 공동으로 이달 말부터 전남대 서문~사대부속중·고교 정문간 공원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공원화사업은 전체 6천340㎡의 부지 가운데 광주시가 3천179㎡, 전남대는 3천161㎡에 각각 3억8천만원, 3억5천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느티나무 등 15종 1만3천500여 그루의 나무와 꽃잔디 등 지피식물 5종 2만2천960본을 심게 된다.

또 치의학전문대학원 앞 진입광장과 산책로변에는 파고라와 앉음벽 등 10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친화형 녹지공간으로 공원화해 인근 주민과 병원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전남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1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 4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568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그늘숲 조성,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교통섬 등 소규모 공간 녹화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4월에는 환경부와 '저탄소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설원예 목탄 난방기 120대 보급

광주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탄(펠렛)을 이용한 난방기 보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목탄(펠렛)을 이용한 난방기 보급 사업비 6억7천만원을 긴급 투입해 120여대를 우선 보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펠렛은 목재를 톱밥형태로 갈아 건조시킨 후 고온 압축·사출한 고체연료로 1.5~2.5㎝ 크기여서 운반이 편리하고 난방용 등유에 비해 가격이 30~50% 저렴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림동 임대-분양 아파트 담장 철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본보 10월 17일자 9면>을 빚게 했던 광주시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동천마을 1(임대)·2단지(분양) 철제담장이 자진 철거됐다.

2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이날 2단지 입주민들이 1·2단지 사이의 260m 철제담장 중 백구 어린이 공원 인근에 설치된 40m 구간을 자진철거해 1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개방된 통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 버스 승강장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당초 북구는 21일 입주민들이 철제담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사랑의 김치' 600포기 경로당 전달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20일 오후 동구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관내 13개 경로당 대표에게 김장김치 15㎏씩을 전달했다.

동구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자연보호동구협의회와 한국부인회동구지회, 지원동좋은동네만들기 회원 40여명과 함께 사랑의 김치 600포기(9천㎏)를 담았으며, 이번 주중 관내 경로당 95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김치나누기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수능 수험생 사기판매 주의하세요

市, 내달 20일까지 고교 3년생 소비자 교육

광주시는 다음달 20일까지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통신·방문판매나 사기성 상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개설됐다.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것으로 사기적인 통신판매, 학원사업자와 분쟁, 다이어트제품 허위·과장광고 피해, 개인신용 관리 등이다.

이번 소비자 교육에는 현재까지 25개 고교(대상 학생 6천100여명)가 신청했다.

시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피해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홈페이지 소비생활센터(http : //sobija.gjcity.net)에 내용을 게재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판매와 통신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